

혈맥

1. 일반현황

| | | | | | |
|------|--------|-----|-----|------|------------|
| 조사일시 | 2017.7 | 조사자 | 홍재범 | 유형구분 |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 대상명 | 혈맥 |
|-----|----|

□ 대상의 개요

| | | | | | |
|----------|----|-------|---|------------|--|
| 보존대상의 특성 | 무형 | 물리적형태 | -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작가 | 김영수 | 출간연도 | 1948년 |
|----|---|------|-------|
| 내용 | <p>제1막 1947년경. 이른 여름. 서울 성북동 근방, 어느 산비탈 아래에서 사흘 동안 일어난 이야기. 무대는 상하수로 나뉜 언덕. 언덕 위는 일제 강점기 소개(疏開)통에 여러 채의 집이 한꺼번에 헐려 나간 넓은 공터. 공터 뒤로는 상수 끝에서부터 하수 끝까지 철망이 둘러 있고, 철망 뒤 저 멀리로는 도심지대의 높은 건물이 바라보인다. 상수 철망 앞으로 아까시아 나무 두어 주. 밤이면 이 도심지대의 불빛이 멀리 바라보기에 별같이 찬란하고 아름답다. 옆에는 「계림상사건축용지」라고, 흰 펑키 바탕에다 검정 글씨로 쓴 표목 말뚝이 꽂혀 있다. 하구 모퉁이에 전신주에는 「소변엄금」, 「밑에 사람 사오」라고 서투르게 쓴 종이가 붙어 있다. 언덕 아래에는, 비탈길을 사이에 두고, 방공호가 셋이 나란히 뚫려있다. 하수 제1방공호에는 강통영감네 가족이 살고 있고, 중앙 제2방공호에는 원팔네 가족이 살고 있고, 상수 끝 제3방공호에는 홀아비 털보네 부자가 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이때, 언덕 위 하수에서 털보 떠벌어 젖히며 들어온다. 손에는 문패 깎은 것 하나 들었다.</p> <p>털보 어디, 네 놈들 맘대로 해 봐라. 안 될걸 그렇겐. 흥, 권리금을 안 낼테면, 일 주일 안에, 내놔라? 왜, 열병에 땀을 내는 건 어떻게…… (다시 하수 밖을 돌아다보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삼천원씩 다 권리금을 냈는데, 왜들, 여기만 안 내느냐구? 인마 안 낼테야 안 낼테니 어쩔 테야. 흥, 일 주일 안에 내놔라? 이놈 어디 권리껏, 해 봐라. 권리껏 해 봐! 방공굴에 사는 놈은 이름 석자두 없는 줄 아니? 똥병이 날 놈 같으니라구! (하며, 내려오려는데)</p> <p>감투 왜 그래, 털보?</p> <p>털보 왜가 아니라 글세 이 거지 움 같은 땅굴두, 뭐 강가래나 뭇랜 놈이, 그 전에 접수를 했대지 않아? 이 위에 무슨 일본 놈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놈이 거기서 일제 강점기 사무원이 없대.</p> <p>감투 그래서?</p> <p>털보 그래, 이 방공굴을 모두 제가 그 전에 접수헌거니까, 권리금을 내든지, 그렇잖으면 당장 내놓래는게 아냐?</p> <p>감투 그 소리야? 그러기에 나같이 임자 없는 방공호만 찾아가 살래니깐…… 내 놓래면 내 좌야지 벨 수 있나?</p> <p>털보 기금담병거진 어떻게…… 흥, 권리금? 권리금 삼천원 낼게 있으며 여기 있어? 조금</p> | | |

더 버텨서 셋방을 얻어 나가지…… 시레베 아들 놈 같으니라구…… (하며 아래로 내려온다)

(중략)

텔보 (혼잣말같이) 문패를 안 달구 사니까, 임자가 없는 줄 아는 모양이지. 제 놈은 된 데 그래. 해방통에 일본집에다 문패만 달구 들어간 놈 아냐. 흥 되다 찌브러진 놈 같으니라구, (거북에게) 딴 소리 말구, 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쓰구 거가라, 큼직하게 손바닥만하게 써라! 큰 덕(德)자, 석삼(三)자, 그렇다! 알지……

* * * * *

거북이 한 만원이면 된대요.

텔보 핫! 자식은…… 또 저 소리아! 아, 인마, 아스꾸리 장수두, 우선 구루마가 있어야 허구, 통이 있어야 허구, 규모가 다 맞아야 허지, 경강쟁이루 되는 줄 알어? 자꾸 그런 소리 해야 네 입만 아프다. 아뭇소리 말구, 영어나 부지런히 배 뉘! 잘 생각 해라. (벼룩집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옮기며) 방공호 구덩이를 면혈래 거든 자알 생각해서 해!

거북이 아버지!

텔보 (걸어가면서) 암만 그래두 소용 없다.

거북이 그럼, 나두 칠복이같이, 영등포 약공장에 가서 직공이 될 테예요.

텔보 (돌아서며) 뭐, 뭐, 어디? 영등포 약공장?

거북이 저번에 길에서, 칠복이 만나 물어 보니까, 거긴 직공 합숙소가 있대요. (열심히) 아버지, 나두 칠복이같이 직공이 될 테예요, 네. 이까짓 빠이뉘나 밤낮 팔어야 밥 벌이두 안 되는 길.

텔보 하, 이런 못난 자식이 있나. (슬쩍 농치며) 그러기에 인마 미군 부대에다 몇 사람씩 다리를 놔서, 말을 해 놓지 않았느냐 말야.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팔자고치게 돼! 알지두 못허구…… 고기니, 실과니 그 사람네들 먹구 내버리는 탁찌기만 끌어 와서 내 와두. 하루에 수천환 각수야…… 자식은 알지두 못허구…… 딴 생각 말구, 내일이래두 야학에 가서, 넌 좀 남보다 형편이 다르다구 잘 얘기허구 늦어도 한 달 안에 대강 운만 떼 달라구 그래라. (집 안으로 발을 옮기며) 방공굴 살기, 싫증두 안 나니…… 잘 생각해서 해라. 직공은 무슨 벌어 먹을 놈의…… (하며, 중얼거리며 들어간다)

* * * * *

원철 (형을 보고) 형! 지금도 당장, 이렇게 우리들 눈 앞엔 서글픈 표정이 걸레같이 널려 있지 않소…… 옥회는 건디가 못해 수포다리 우동집 갈보가 왜 나가구…… 복순이는 기생이 될려구 밤마다 매를 맞아가며 어미에게 신고산 타령을 배우고…… 어린 것들은…… 담배 목관을 들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쫓겨대니구, 형! 영원히 영원히, 이 땅굴 속은 우리들의 조선이 아닐 것이요…… 형! 서루 서루 붙잡고, 때밀고 힘을 합해서 우리두 모두 여기를 벗어나는 날! 형! 그 날이 그림지 않소? 그 날이 어서 어서 보구 싶지 않소…… 형!

* * * * *

백옥희 참, 아유 깜박 잊을 뻔했네! (하고는 핸드백에서 무엇인지 종이에 싸인 것을 척 내 준다) 하잇!

원철 이건 뭐요? (받는다)

백옥희 알겠어요? 어디 맞춰 보세요.

원철 날 주는 거요?

백옥희 아이 몰라요…… (하더니 팩 돌아선다)

원철 (짜 본다. 미군 양말이다. 불쾌한 낯빛이다) 옥희……

| | |
|----|---|
| | <p>백옥희 몰라요…… 어찌든……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허담? 원철 (부드럽게) 여보! 백옥희 (갈갈갈…… 웃으며 돌아서더니) 원철씨두 한 번 홀에 와 보세요…… 생각이 단박에 확 달려지실 테니까…… 그까짓 밤낮 책만 읽구, 시만 짓지 마시구 좀 바람을 쏘이세요. 원철 그렇게두 맘이 즐겁소? 백옥희 (취해서) 아아, 난, 지금 꼭 꿈나라에만 온 것 같아요. 아아 난 여태 세상이 그런 줄 모르구, 여기서 썩구 있던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분해 죽겠어요. 원철 옥희! 백옥희 원철씨! 원철씨두 어서 여길 빠져 나오세요…… 이건 쓰레기통이지 사람 사는 데가 아녜요~ 지옥이에요! 더럽구, 어둡구, 냄새가 나구…… 아이 생각만해두 지긋지긋해. 내가 어떻게 저기서 일생을 살았어!</p> <p>(중략)</p> 원철 땅굴 속에는 딸을 팔아서 배를 채울려고 허덕이는 인간이 있소…… 백옥희 …… 원철 이 속에는, 오늘도 말라붙은 엄마의 젖을 쥐어뜯다 울지도 못하고, 나무등걸같이 나가 떨어진 천사들이 있소. 백옥희 ……참, 내, 별…… 원철 그것은 바로 여기요! 바로 이 비뿔 아래요! 이 땅굴은! 미국두, 중국두 쏘련두 아냐! 옥희! 옥희두 여기서 살었지? 여기서 나왔지? 응? 백옥희 (톡 쏘며) 그러니 어찌란 말예요. 내 참, 우서 죽겠네! 누굴 챙필 주는 거예요? 원철 찡피? 백옥희 그럼 뭐예요? 난, 남양댄스홀의 넘버언예요! 원철 (입 속으로) 넘버 원! 백옥희 (환! 돌아서려는데) 원철 옥희! (양말을 내어주며) 됐오! 난 이런 거 신을 자격이 없는 사람요! 백옥희 몰라요! (하고 손을 탁 치고 암상이 나서, 퐁퐁 상수로 들어간다) |
| 평가 | <p><혈맥>은 방공호에서 살아가는 세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광복 직후 도시 서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묘사한다. 세 가족은 복덕방을 하는 털보영감과 아들 거북이, 땀질하는 영감(깡통) 부부와 딸 복순이, 인텔리 청년인 원철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광복 이후, 서울의 어지럽고 무질서하며 절망적인 사회 형상을 희비극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등장 인물들은 서민이나 지식인이거나 막론하고, 불구적 삶을 영위하는 이들로, 해방직후의 암담한 현실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주변적 인물들을 자세히 그리다보니 중심 인물을 보다 인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과 원철의 대사에 시국문에 대한 다소 설교적인 내용이 있는 점 등은 결함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40년대 후반의 사회상을 이만큼 실감나게 묘사한 희곡텍스트는 흔하지 않다. 광복 이후의 현실 자체를 이념적인 편향성 없이 관찰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심리, 그늘진 삶의 내면, 가치관의 혼재, 시대적 모순과 구조적 부조릴 통해 민족적인 좌절과 꿈을 진술하고 성실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혈맥>은 광복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문학과 역사성을 담보한 수작으로 꼽힌다.</p> <p>출처: 서연호, 『김영수 희곡의 작품세계』, 서연호·장원재 공편, 『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 1』, 연극과인간, 2007, 273~275면.</p> |

2. 보존필요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후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희곡 - 해방 직후 서울 방공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 |
|--|


3. 활용방향

-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해방 후의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 | |
|------|---|
| 면담자 | |
| 면담내용 | -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 | | | |
|-----------|---|------|---|
| 이름 | 김영수 (金永壽, 1911년 ~ 1977년) | 인물사진 |  |
| 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년 서울 출생 - 1933년 와세다 대학 재학 중 동경 학생예술좌 창립 - 1939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 수료. 귀국 후 동양극장 전속작가로 활동 - 1940년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로 활동. 《조광》지, 《문장》지, 《인문평론》지에 단편, 희곡, 평론 등 발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연극 시평과 칼럼 다수 발표 - 1941~44년 동양극장 재입단, 전속작가로 활동 - 1945년 고려문화사 편집국장. 주간지 《민성》, 《어린이 신문》 창간 - 1947년 극단 ‘신청년’ 창단. 전속작가로 장막극 6~7편 발표 - 1951년 동경에 있는 유엔국 총사령부 방송국 VUNC에 파견, 작가 겸 연출가로 8년 근무 - 1977년 별세 | | |
| 주요작품 및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희곡 <단층> <사랑의 노래> <연애특급> <운명의 딸>, 단편 <生理> <코> <병실>, 중편 <放浪記> 발표 - 1940년 각색: <인생대학> <귀향> <목격자>, 희곡 <총> 표 - 1941~44년 각색: <결혼생태> <역마차> <행복한 가족> <절레꽃> <사랑>. <희망촌> <향기없는 꽃> <갱생의 개가> <함박꽃> <해풍> <그늘진 고향> <귀향기> 등 발표 - 1946년 한국 최초 일일연속극 <뽕뽕이의 모험> 집필. <민중전(閔中殿)> <정열 지대> <불> <사육신> 등 공연 - 1947년 <황야> <5남매> <사랑의 가족> 발표 - 1948년 <혈맥> <사랑> <여사장 요안나> <운명> <결혼명령> 등 공연. 장편 <파도(波濤)> 발표 - 1949년 시나리오 <성벽을 뚫고>(감독 한형모) - 1951년 장편 <여성회의>, 희곡 <고향 사람들> 발표 - 1954년 영남일보에 <풍조(風潮)> 연재. 방송극 <박서방> 발표. 시나리오 <여사장>(감독 한형모) - 1960년 연합신문에 장편 <걱정의 딸> 연재. 조선일보에 장편 <바람아 불어라> 연재. 단편 <혼탁> 발표. 시나리오 <장미의 곡>(감독 권영순) <박서방>(감독 강대진) - 1961년 시나리오 <이 순간을 위하여>(감독 이강원)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감독 이성구) - 1962년 시나리오 <신입사원 미스터 리>(감독 김기덕) <서울로 가는 길>(감독 이병일) <새택>(감독 이봉재) - 1963년 시나리오 <미스 김의 이중생활>(감독 이성구) <오색 무지개>(감독 조공하) <귀국선>(감독 이병일) <새 엄마>(감독 강대진) <굴비>(감독 김수용) <혈맥>(감독 김수용) - 1966년 시나리오 <친정 어머니>(감독 김기덕) - 1969년 희곡 <토끼와 늑대> 발표 - 1972년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병주의 <관부 연락선> 등 텔레비전 드라마 각색. 한국 최초의 본격 뮤지컬 <살짜기 읍서예> 발표(극단 예그린) | | |
| 수상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4년 「동맥」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1등 당선. 「광풍」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희곡 부문 입선. - 1939년 「소복」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 1등 당선 - 1948년 희곡 <血脈>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작품상 수상 | | |
| 기타사항 | - | | |

※ 출처: 서연호·장원재 공편, 『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 1』, 연극과인간, 2007, 267~269면.

6. 기타사항

□ 서울의 이재민 실태

7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과 거주 실태조사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에 포함되는 세대 총수는 26만 3,562세대인데 이 중에 이재민 세대수는 4,011세대이며 동 가족 수는 2만 1,185인이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주택 세대라고 인정되는 토막(土幕)·방공호 및 산재자(散在者) 등의 총 세대수는 1,015세대를 넘고 있어 시당국에서는 이미 보광동(普光洞)에 약 600세대를 수용할 주택을 준공시키는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 내로 연희동에 2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주택을 신설하리라 한다. 그리고 동 이재민주택 세대수를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용두동 : 620세대 3,314명 금호동 : 600세대 3,045명

장충동 : 505세대 2,904명 염리동 : 411세대 2,117명

대현동 : 292세대 1,410명 왕십리 : 133세대 432명

역전 : 82세대 369명 양평동 : 74세대 395명

이문동 : 48세대 201명

(이하는 적산가옥에 수용된 수)

사찰 : 1,01□세대 5,094명 요정 : 141세대 862명

유곽(遊廓) : 154세대 504명

출처: 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 31일자 기사내용(자료대한민국사 제13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 관련기사 - “방황하는 서울 재민(災民) 이십삼만오천명”

해방된 조국을 찾지 돌아오는 귀한 전재동포들은 말로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수도 서울에는 현재 얼마나 거주하고 있자 그 실태를 서울시 전재과에 집계된 통계로 보면 작년 시월부터 지난 십일월 말까지 서울을 거쳐간 전재동포는 □□□□(□인원(人員)) 백오십여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서울시내 민간원호단체와 시(市)수용기간에 수용되었든 전재동포는 총연인원은 칠십칠만천구백칠십삼만명으로 혹은 고향으로 혹은 자□□역을 어더 수용소를 나간 사람이 연인원 이십삼만사천오백삼십□명 그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재동포는 개산 이십삼만오천삼백 여명에 말한다고 한다. 지난 일년동안 각 원호 단체와 □□용소에서 원호한 업적을 보면 고향으로 돌려어 보내기위하여 철도무임승차(無賃乘車)를 □선한 것이 팔십삼만일천육백이명 직업알선한 것이 십칠만사천오백칠십칠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택알선이 이십삼만이천오백십육명으로 평균 한세대 십명을 잡고 이만삼천이백오 십여세대가 알선된 셈이다.

출처: 동아일보 1946년 12월 10일자 기사내용 (<http://newslibrary.naver.com>)